

유가 오르고 반도체 떨어지고...5개월 연속 무역적자 '비상'

1~20일 무역수지 102억1700만 달러 적자 연간 누계 254억7천만 달러...사상 최대치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과 반도체 등 주력 상품 수출 부진으로 우리나라 무역에 5개월 연속 적자 '경고등'이 켜졌다.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첫 '쌍둥이 적자'(재정·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전년 동기 대비 3.9% 오른 334억2400만 달러,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한 436억4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달 1~20일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102억1700만 달러 적자를 냈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254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4월(-24억 달러), 5월(-16억 달러), 6월(-25억 달러), 7월(-48억

달러) 4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도 현재 흐름이 말일까지 이어진다면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연간 규모로는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206억 달러 적자) 기록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이는 무역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56년 이래 66년 만에 최대치이기도 하다. 연속되는 무역수지 적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3대 에너지원인 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이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우리 수출액은 지난 2020년 11월 이후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압도하면서 적자를 내고 있다. 이달 1~20일 원유(72억4400만 달러), 가

스(31억800만 달러), 석탄(21억3600만 달러) 수입액 합계액도 124억8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 확대 폭은 전년 동원 대비 1월 92억 달러, 2월 45억 달러, 3월 84억 달러, 4월 71억 달러, 5월 67억 달러, 6월 53억 달러, 7월 88억 달러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을 웃돌고 있다. 고환율 상황까지 겹치면서 수입액 증가 기조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22일) 월·달러 환율은 13년 4개월 만에 장중 한때 134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주력 수출 상품의 부진도 아쉬운 대목이다. 우리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 수출액은 이달 1~20일 62억7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다. 무선통신기기(-24.6%), 컴퓨터 주변기기(-32.8%) 등도 대폭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액 감소 추이가 이달 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면, 2020년 6월 이후 2년 2

개월 만에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하반기 반도체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3분기 메모리반도체 D램 가격은 2분기보다 최대 18% 하락이 전망된다. 아울러 우리 수출 의존도가 큰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적자가 이어지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달 1~20일 대(對) 중국 무역수지는 6억6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대중 무역수지는 5~7월 3개월 연속 적자를 내면서 1992년 10월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대로라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첫 4개월 연속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코로나19 봉쇄 이후 중국의 수요 둔화와 함께 중국산 원자재 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중간재 위주로 짜인 한국의 수입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우리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50.9%로 1차 산품

(20.8%), 소비재(13.1%), 자본재(14.8%) 등을 압도했으며, 중간재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28.4%를 차지했다. 일부에서는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유력시되는 만큼, 경상수지와 연관이 있는 무역수지의 적자가 이어진다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쌍둥이 적자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에 이달 중 수출품목·지역 다변화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종합수출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비롯해 주요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 규제 개선, 현장으로 해소 등 수출 활성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등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호기자

아이오닉6, 첫날 3.7만대 사전계약

국내 완성차 최대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세단형 모델인 '아이오닉 6'가 사전계약 첫날 국내 완성차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지난 22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계약을 시작한 아이오닉 6의 첫날 3만 7446대 계약이 이뤄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현대차 아이오닉 5가 보유한 국내 완성차 모델 역대 최대 첫날 사전계약 대수인 2만 3760대를 1년 반 만에 1만 3686대 초과 달성한 수치다. 지난날 부산모터쇼를 통해 처음 공개된 아이오닉 6는 ▲6.2km/kWh의 전기소비효율(18인치 휠·스탠다드 2WD 기준) ▲산업부 인증 기준 524km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18인치 휠·롱레인지 2WD 기준) ▲현대차 역대 모델 중 가장 낮은 0.21의 공기저항계수 등을 내세우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6의 혁신적인 내·외장 디자인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공력성능을 기반으로 한 뛰어난 주행가능거리, 새로운 전기차 경험을 선사하는 신기술 등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오닉 6의 뛰어난 상품성을 쉽고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주요 매체들의 우호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모토 운트 슈포트는 "공기역학적으로 뛰어난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더 많은 거리를 달릴 수 있



다. 그러나 일반적인 전기차는 바닥에 깔린 배터리를 때문에 차체를 낮게 만들거나 전면부 면적을 줄일 수 없다"며 "반면 아이오닉 6는 외장형 액티브 에어플랩 등 다양한 공력 분야 기술들이 대거 적용돼 양산차 중 최고 수준의 공기역학 성능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 앤드 드라이버는 "몇 년 전, 현대차는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영감을 반영한 프로페시 콘셉트카의 매끈한 디자인으로 미래를 예언했다"며 "바로 그 콘셉트카를 기반으로 한 양산차인 아이오닉 6는 복고적인 모습과 미래적인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독일 자동차 전문매체 아우토티비트도 "아이오닉 6가 긴 휠베이스를 갖췄다는 것은 실내 및 뒷좌석에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신경 썼다는 것"이라며 "현대차가 누에고치 콘셉트라고 언급한 내용처럼 탑승자들은 아이오닉 6의 실내에서 거실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것"이라고 평했다. 최이슬기자

LG전자, 테이블형 공청기 '퓨리케어 에어로퍼니처' 공개

내달 2일 獨 개막 'IFA 2022'서 첫선...연내 출시

LG전자가 신개념 테이블형 공기청정기 '퓨리케어 에어로퍼니처'를 유럽 시장에 첫선을 보인다. 23일 LG전자는 내달 2~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전자 전시회 'IFA 2022'에서 연내 출시 예정인 공기청정기 신제품을 공개한다. 이 제품은 가로 27.5cm, 세로 55cm의 크기로, 새로운 융복합 디자인을 갖췄다. 제품 아래쪽은 360도 방향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의 원통형 디자인을, 위쪽은 원형과 트라젝트 두 가지 타입의 테이블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1~3인 가구가 늘어나고 침실, 서재 등 다양한 개별 공간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디자인됐다. 청정면적은 19.8㎡(약 6평)다. 테이블 하단에 무드 조명도 적용했다. 고객은 LG 씽큐(ThinQ) 앱에서 8가지의 조명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 밝기도 2단계로 조절 가능하다. 테이블 상단에는 무선충전링을 적용해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 등을 충전할 수 있다. 이 제품은 구입 후에도 LG 씽큐 앱의 'UP가

전 센터'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업그레이드로 추가할 수 있는 LG UP가전 라인업이다. LG전자는 무드 조명의 밝기 단계를 더 정밀하게 조절하는 등 새로운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신제품에 차별화된 위생 기능을 집약했다. U·V나노(UVnano) 기능은 바람을 내보내는 팬을 UV LED로 살균해 유해세균을 99.99% 제거해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UV나노는 UV LED와 자외선의 파장단위인 나노미터(Nanometer)를 합성한 용어다. 또 이 제품은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의 뛰어난 공기청정 성능도 계승했다. 공기청정 필터는 항바이러스·항균 효과는 물론 극초미세먼지를 비롯해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아세트산, 아세트알데히드 등 5대 유해 가스를 제거한다. 이 제품은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청정성능 CA(Clean Air)인증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KAF; Korea Asthma Allergy Foundation) 인증 ▲영국알레르기협회(BAF; British Allergy Foundation)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LG 퓨리케어 에어로퍼니처 외관 재질은 페전자기기에서 추출해 만든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했다. 이는 폐기물의 자원화와 순환 경제를 추구함으로써 미세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LG전자가 실천하고 있는 ESG 경영의 일환이다. 이 제품은 크림 로제, 크림 옐로우, 크림 그레이의 3개 컬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도도새를 모티브로 한 연작으로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김선우 작가와 협업한 한정판 테이블 'Travail'과 'Secret admirer' 2종도 선보일 예정이다.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 이재성 부사장은 "고객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디자인을 선택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에어로퍼니처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불황에 인기 되찾은 경차...9년만에 판매량



경기 불황에 경차 판매량이 9년만에 반등했다. 23일 카이즈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7월 경차 판매량은 7만8056대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5만5250대)보다 29.2% 증가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촉발한 생산 지연으로 다른 차급의 신차 판매는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반대 흐름이다. 현재 국내에서 경차로 분류하는 차종은 현대차 캐스퍼, 기아 레이, 기아 모닝, 한국지엠 스파크, 르노코리아 트위지 등 5개다. 경차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엄청난 인

기를 누리다 2002년 들어서 판매량이 감소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자 다시 판매량이 급증했다. 지난 2012년 20만2844대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타 9년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2년 20만2844대까지 팔리던 경차는 2013년 18만2021대, 2014년 18만6702대, 2015년 17만3418대, 2016년 17만3008대, 2017년 13만8895대, 2018년 12만7431대, 2019년 11만5267대, 2020년 9만7072대, 2021년 9만6482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다시 연간 10만대를 회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원자재 가격 상승,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고유가 추세 등이 경차 판매를 높이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경차는 유지비도 저렴하다. 경차의 취득세는 차량 구입가의 4%로 일반 승용차의 7%보다 낮다. 아울러 유튜브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최근 반도체 공급난으로 차량을 받는데 6개월~1년 이상 걸리지만 경차는 최대 3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오유나기자

전남 농촌체험·민박마을 숙박하면 농수산물 할인쿠폰



전남도가 농촌마을에서 체험관광을 하면 지역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9월부터 12월까지 타 지역 도시민이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농촌민박시설을 이용하면 최대 4만원의 남도장터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할인쿠폰 혜택은 전남도가 지정한 농촌수

9~12월, 남도장터 최대 4만원 쿠폰 증정

박업소를 이용해야만 받을 수 있다. 전남에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농촌민박 중 사업 참여를 바라는 숙박업소는 신청서를 시·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정 받을 수 있다. 할인쿠폰을 지원받아 농촌관광을 체험하고 싶은 이용객은 우선으로 지정된 속소에 예약한 후 시·군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농촌숙박업소 소재지 시·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농촌민박은 농촌의 자연환경과 숙박시설, 체험 프로그램을 등을 활용해 농촌을 찾는 도시민에게 힐링을 제공함으로써 도농 교류 활성화와 농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2020년 농촌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농촌관광 추세가 대규모 체험에서 나홀로 또는 가족단위 당일 방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특산물 구매도 늘고 있다. 서순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이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문화 자원이 풍부한 전남 농촌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들을 위해 청정 전남 친환경 농산물을 편리하게 구입하도록 남도장터 할인쿠폰 발행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채본부

“임영웅 굿즈 드려요” GS샵, TS삼푸 8주년 특집 방송

오는 27일 오전 11시50분·오후 5시30분 두 차례 방송

GS샵은 오는 27일 오전 11시50분과 오후 5시30분 두 차례에 걸쳐 TS삼푸 8주년 특집 방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TS삼푸는 2014년 GS샵에서 첫 선을 보인 이래 누적 매출 4200억원, 2100만명 판매라는

기록을 달성한 브랜드다. 이날 특집 방송에서는 리뉴얼 출시한 신상품 저스트 TS삼푸(500ml) 4개, 후대용(100ml) 4개, 체험분(6g) 4개 세트에, 트리트먼트(500ml) 1개를 특별 구성으로 추가 증정한다.

모든 구매고객에게는 TS삼푸 새 모델인 가수 임영웅 굿즈도 증정한다. 임영웅 굿즈는 신용카드 크기의 포토타 1매와 A4사이즈 크기의 브로마이드 1장으로 구성됐다. 뉴시스